

KIA 정성훈 · 롯데 이대호 16번째 1000타점은 누가?

두 선수 모두 한 경기 최다 타점 '7타점'



롯데 자이언츠의 간판 타자 이대호(36)와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타자 정성훈(38)이 나란히 1000타점 달성을 눈앞에 뒀다. 17일까지 1000타점에 이대호가 5개, 정성훈이 8개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누가 먼저 역대 16번째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선수가 1000타점을 기록하게 되면 정성훈은 KIA 소속 선수



로는 이범호, 최형우에 이어 3번째고, 이대호는 롯데 소속 선수로는 마해영에 이어 2번째다.

이대호는 2001년 9월 29일 사직 두산전에서 데뷔 첫 타점을 올렸다.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은 2005년 4월 29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기록한 7타점이다. 2010년 KBO리그에서 전무후무한 타격 7

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이대호는 당시 133개의 타점을 올렸다. 이것이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이다.

이대호는 1000타점과 동시에 또 다른 대기록에도 도전 중이다.

이대호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2012~2016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00타점을 기록해 타이론 우즈(두산 베어스), 박병호(넥센 히어로즈), 최형우(KIA)와 공동으로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다.

17일 현재 75타점을 기록 중인 이대호는 올해에도 100타점 달성이 유력하다. 5년 연속 100타점을 달성하면 KBO리그 최초가 된다.

정성훈은 1999년 4월 11일 대구 시민 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본인의 첫 타점을 신고했다.

한 경기 최다 타점은 현대 유니콘스 시절이던 2005년 7월 24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홈런 2개를 쳐 내며 기록한 7타점이다. 정성훈은 현대에서 뛴 2007년 76개의 타점을 올린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점을 기록했다.

정성훈은 1000타점을 넘어서려는 경우 KBO 리그 역대 8번째로 1000타점과 1000타점을 모두 달성하는 선수가 된다.

‘홈런쇼’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AL 연장 끝 승리

역대 최다인 양팀 10개씩 홈런...브레그먼 MVP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제89회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서 연장 10회초 결승 솔로포를 때려낸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의 알렉스 브레그먼(휴스턴 애스트로스)이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 여름의 야구 축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서 홈런쇼가 펼쳐진 가운데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가 연장 끝에 승리를 가져갔다.

AL 올스타팀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제89회 MLB 올스타전에서 연장 10회초 터진 알렉스 브레그먼과 조지 스프링어(이상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백투백 홈런에 힘입어 8-6으로 내셔널리그(NL) 올스타팀을 꺾었다.

AL 올스타와 NL 올스타는 이날 역대 메이저리그 한 경기 최다인 10개의 홈런을 주고 받았다. 양 팀이 5개씩 때려냈다. 올스타전 한 경기 최다 홈런 이전 기록은 1961년과 1954년, 1971년의 6개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 스탯&인포 트루터에 따르면, 각 팀에서 각기 다른 5명의 선수가 홈런을 친 것은 올스타전과 정규리그,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최하다.

6년 연속 올스타전 승리를 가져

간 AL 올스타는 올스타전 역대 전적에서 44승 2무 43패로 한 발 앞섰다. AL 올스타가 역대 전적에서 앞서게 된 것은 17승 1무 16패로 리드한 1963년 이후 55년 만이다.

먼저 앞서간 것은 AL 올스타다. 2회초 선두타자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좌중월 솔로포를 작렬해 선취점을 올린 AL 올스타는 3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가 좌중월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려 2-0으로 앞섰다.

NL 올스타도 이내 추격에 나섰다. NL 올스타는 이어진 3회말 월슨 폰트레라스(시카고 컵스)가 좌월 솔로 아치를 그려내 1점을 만회했다.

이후 추가점을 내지 못하던 NL 올스타는 7회말 1사 후 트레버 스톤리(콜로라도 로키스)가 좌월 솔로 홈런을 작렬해 2-2로 따라붙었다.

AL 올스타는 곧바로 균형을 깬다. 물꼬는 추신수(텍사스 레인저

스)가 뒀다. 추신수의 좌전 안타와 스프링어의 안타로 1사 1, 2루의 찬스를 잡은 AL 올스타는 진 세구라(시애틀 매리너스)가 담장을 훌쩍 넘기는 좌중월 3점짜리 아치를 그려내 5-2로 리드를 잡았다.

NL 올스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8회말 크리스티안 엘리치(밀워키 브루어스)가 좌중월 솔로 홈런을 날려 1점을 만회한 NL 올스타는 9회말 1사 1루에서 스카터 제넷(신시내티 레즈)이 우월 투런포를 쏘아올려 5-5 동점을 만들었다.

연장에 돌입한 승부에서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 타이거즈가 집중력을 보여 AL 올스타에 승리를 선사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브레그먼은 NL 올스타 구원 투수 로스 스트리플링(LA 다저스)의 5구째 시속 93.7마일(약 150.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좌중월 담장을 넘겼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스프링어는 펜스를 넘어가는 연속타자 우중월 홈런을 작렬해 AL 올스타의 7-5 리드를 이끌었다.

ESPN 스탯&인포에 따르면 같은 팀 타자가 올스타전에서 백투백 홈런을 때려낸 것은 1975년 LA 다저스의 스티브 가비와 지미 윈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세구라, 미치 모어랜드(보스턴 레드삭스)의 연속 안타로 1사 1, 3루의 찬스를 이어간 AL 올스타는 마이클 브랜틀리(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해 승기를 잡았다.

NL 올스타는 10회말 선두타자 조이 보트(신시내티 레즈)의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만회했으나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AL 올스타에 무릎을 꿇었다.

교체 출전해 연장 10회 결승 홈런을 때려낸 브레그먼은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브레그먼은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고 MVP의 영예를 누렸다.

‘총알’ 김국영, AG 100 · 200 · 400m 릴레이 질주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세 종목 출전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스타 김국영(27·광주광역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세 종목에 출전한다.

김국영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8일 “김국영이 아시안게임에서 100m, 200m, 400m계주 등 3개 종목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아시안게임에는 김국영에게 세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다. 김국영은 2010년 광저우 대회, 2014년 인천 대회에 출전했으나 메달을 따지 못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 07) 경신과 9초대 진입, 개인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0년부터 남자 100m 한국기록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국영은 슬럼프를 겪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탔

다.

2015년 7월 광주 하계유네버시아드대회 준결승에서 10초16을 기록해 5년 만에 한국기록을 0.07초 단축한 김국영은 지난해 6월 코리아 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07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2015년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도 출전한 김국영은 지난해 영국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24를 기록해 한국 육상 단거리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 남자 100m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불운한 기량을 과시한 김국영은 “올해 중국,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와 중동 선수들까지 기량이 올라와 100m가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나도 많은 코칭스태프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뉴스

러시아월드컵 ‘영플레이어상’ 음바페, 상금 · 수당 전액 기부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하며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킬리안 음바페(20)가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8일(한국 시간) “음바페가 러시아월드컵에서 받은 수당과 상금 등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가 넘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스포츠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이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 4골을 넣으며 프랑스의 미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4-3 승리를 이끌었다.

또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헤리골을 기록했다.



음바페는 1998년 12월 20일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정확히 따지면 19세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10대가 골을 넣은 건 1958 스웨덴월드컵의 펠레(브라질) 이후 60년 만이다.

출중한 기량을 자랑하면 유럽 주요 클럽의 레이더망에 들었지만 음바페는 “과리 생채프랑에 남은 것이다”고 한 상태다.

US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43억원 1회전 탈락해도 6000만원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우승자가 380만달러(약 42억8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8일(한국시간) 올해 US오픈 상금 내역을 밝혔다.

올해 대회 총 상금은 5300만달러(597억3000만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5040만달러에서 5%((280만달러)가 증가했다. 남녀 단식 우승자 상금도 지난해보다 10만달러가 늘었다. US오픈 상금은 2013년과 비교해 57%나 인상됐다.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5만4000달러(6000만원)를 받고, 한 클럽의 레이더망에 들었지만 음바페는 “과리 생채프랑에 남은 것이다”고 한 상태다.

‘2타수 1안타’ 추신수, 생애 첫 올스타서 ‘출루 본능’

진 세구라 홈런으로 득점까지 올려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생애 첫 올스타전에서도 ‘출루 본능’을 자랑했다.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로 선정된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제89회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서 8회초 선두타자 닐스 크루스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와 내셔널리그(NL) 올스타가 2-2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내셔널리그 7번째 투수로 8회초부터 마운드에 오른 좌완 투수 조시 헤이더(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했다.

볼카운트 2B5 상황에서 추신수는 헤이더의 5구째 시속 97마일(약 156.1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아메리칸리그 공격의 물꼬를 트는 안타였다.

추신수의 안타와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안타로 1사

1, 2루의 찬스를 일군 아메리칸리그 올스타는 진 세구라(시애틀 매리너스)가 좌중월 담장을 훌쩍 넘아가는 3점포를 작렬해 5-2로 리드를 잡았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선 한국인 타자 최초 안타에 이어 득점까지 올렸다.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로스 스트리플링(LA 다저스)과 대결했다.

스트리플링의 공을 계속 커트하며 승부를 6구까지 물고 간 추신수는 7구째 체인지업을 노려쳤으나 유격수 앞 땅볼에 그쳤다.

추신수는 팬 투표로 뽑은 올스타 선발 출전 선수(AL 9명·NL 8명)로는 뽑히지 못했으나 메이저리그 선수, 감독, 코치 투표로 올스타전 출전권을 따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 것은 2001년 당시 다저스에서 뛴 박찬호, 2002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김병현에 이



추신수가 역대 세 번째다.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다.

올해 텍사스 선수 중에서 올스타에 선정된 것은 추신수가 유일했다.

추신수는 경기 전 아내 하원미 씨, 장남 무빈 군 등 가족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올스타 축제를 즐겼다.

7회까지 벤치에 머물다가 8회 그라운드를 밟은 추신수는 2타수 1안타 1득점으로 생애 첫 올스타전에 무무리했다. 한국 타자 최초의 올스타전 안타와 득점까지 신고했다. 뉴스

‘추신수, 트레이드 시장 관심 미지근’

전반기 활약상 덕분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된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8일(한국시간) 매니저 매치도(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비롯해 이번은 웨이버 트레이드 시장의 대어급 선수들 소식을 다루면서 추신수를 언급했다. 추신수 트레이드가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기 90경기에 출장한 추신수는 타율 0.298, 18홈런, 43타점, 54득점에 출루율 0.405, 장타율 0.506으로 맹활약했다. 특히 5월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부터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16일 볼티모어전까지 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보였다.

소속팀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로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출루 머

신’으로 떠오른 추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속속 제기될 배경이다.

현지 언론은 추신수가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몹쓸’을 갈림돌로 지적해 왔다.

추신수는 2019~2020년 4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추신수를 영입하는 팀은 올 시즌 남은 연봉인 2000만달러도 떠안아야 한다.

변수는 있다. 유망주 영입에 목 말라있는 텍사스가 추신수의 잔여 연봉 일부를 보전하는 조건을 내건다면 트레이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